

민선 5기 전반기 성과

도청별관 문제 등 현안 해결 수출 선도형 생산도시 도약

광주시

◇미해결 지역현안 풀이=강운태 시장은 국민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관련해 논란을 빚어왔던 도청 별관보존 문제와 시공사를 찾지 못해 표류하던 2015라게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촌 조성사업도 현대건설을 끌어 들여 재건축하는 방법으로 해결했다.

광주 자치구간 경제조정과 함께 새 야구장 건설, 프로그래밍 센터, 택시6부제 시행 등 전방이 불투명했던 민선 4기 현안과제들도 대화와 타협, 참여와 소통을 통해 대부분 마무리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강 시장은 지난 2년간 공격적인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모두 238개 기업으로부터 3조 219억원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1만4464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광주연구·개발(R&D)특구 지정용 심사시킨 데 이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 유치함으로써 6000억원의 투자유치 효과를 이끌어냈다. 또, 광·자·동·차·가·전 등 주력산업 중심으로 사상 최대인 134억달러 수출을 달성함으로써 '수출 선도형 생산도시'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문화 허브도시 조성 박차=국민아시아 문화전당 개관에 대비, 문화콘텐츠 제작·유통을 담당할 아시아문화개발원을 개원했



지난해 9월 5일 강운태 광주시장과 데이비슨 헵번 유네스코 의장 등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항쟁의 거리'였던 동구 금남로 1가 옛 전남도청-광주가톨릭센터 구간 518m를 '유네스코 민주인권로'로 지정하는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정된 문화산업부 자진희지구를 활용해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 업체 26개사를 유치했다. 또, 광주CGI센터 개관과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 결성, 문화재단 설립, U대위 선순환 착공 및 경기장 착공 등 광주 문화수도 조성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인권·평화도시 기반 구축=지난해 5월엔 5·18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성공한 데 이어 국제인권도시 네트워크와 인권도시포럼을 잇달

아 개최하고 지난 5월엔 광주인권현장을 제정·발표하는 등 광우를 명실상부한 인권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했다.

◇환경도시 기반 강화=국내외 114개 도시 12개 국제기구가 참여한 '2011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지구환경전망 세계정부간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또, 전국 최초로 '발산행계'를 도입, 온실가스줄이기 실천운동을 시작하는 등 국제 환경도시로서 위상을 구축하고 있다.

/홍원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친환경 농수축산업 중심지 기업 유치·주거환경 개선도

전남도

◇친환경 농수축산업 중심지로=민선 5기 들어 전남은 친환경 농·수·축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남도의 지속적인 투자와 깨끗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전남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찾는 소비자가 늘었다.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유통 구조 개선 등이 뒷받침된 덕분이다.

◇농가 소득 늘고, 부채는 줄고=지난해 전국 농가 소득은 가구당 평균 3014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98만원이 줄었지만 전남은 전년대비 280만원이 증가한 3043만원을 벌어들였다. 부채도 1671만원으로 전년 대비 350만원이 줄었다.

지난해 전국 평균 농가 소득이 6.1% 감소했지만 전남은 무려 10.1% 늘어 농가소득을 조사·발표한 1993년 이후 처음으로 전국 9개 도 평균(3014만원)을 앞질렀다. 또 지난해 전남 농가 가구당 평균 부채도 전년대비 17.3% 감소해 전국 평균 농가 부채(2604만원)보다 933만원이 적었다. 이로써 전남은 지난 2002년 농가 부채가 2884만원을 전국 최하위였던 농가,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농가 부채가 적은 곳이 됐다.

◇잇따른 기업 유치, 주거 환경 개선=행복마을과 뉴타운 조성으로 한옥시공 업체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도로망 확충 등 치질없는 대회 개막은 전남도의 민선 5기 전반기 성과 중 하나로 손 꼽힌다. 사진은 개막식에 참석한 박준영 전남지사부의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12개가 전남에 터를 잡고, 17개 시군에서 1398세대 새로운 주거 환경을 갖게 된 것도 민선 5기의 성과 중 하나다.

또 기업 663개를 유치했고 영광대마전기 자동차, 장흥바이오키움, 보성신소재 등 특화산업을 조성했다. 지난 2011년 산업용지 분양면적 전국 최고를 기록한 것도 바깥만 한 일이었다.

◇연간 수출 첫 400억 달러 돌파=수출도 지속적으로 늘어 첫 400억달러를 달성했으며, 글로벌 향안 도약을 위해 광안항과 목

포신항의 인프라를 확충했다. 이순신대교 개통 등 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된 지역 교통망도 크게 확충된 것도 민선 5기의 큰 성과였다.

◇풍력 등 미래산업 육성=이 밖에 헬스케어 연구소, 포스코마그네슘 관재공장 등 미래 산업의 동력이 될 생물, 신소재, 의학, 신산업 등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풍력 등 청정에너지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빛의만평' (Light's Review) by Kim Jung-doo. It features a cartoon illustration of a person holding a flag and a globe, with the text '지금부터 "늙은나라" 된단 소리' (From now on, the sound of becoming an 'old country').

단체장 강력 의지 ... 공약 이행률 60%대

■시장·자치사 공약추진 점검해보니

중앙정부 지원 안 돼 임기 내 완료 못할 사업도

민선 5기 2년 동안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의 공약 이행률은 60%대를 기록하고 있다. 일부 공약은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로 이미 완료됐거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지 못해 임기 내 사업 완료를 담담할 수 없는 공약도 남아있다.

◇광주시=다른 과제와 중복돼 제외된 3개 공약사업을 제외한 97개 공약 중 28년 만의 택시 6부제 시행과

2013 세계한상대회 유치, 광주문화재단·여성재단 설립 등 18건의 공약은 이미 완료됐다.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도 환경부가 자연환경 타당성 조사를 끝마치고 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있어 올해 안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광주광역시 국제선 재취항도 전남도와 협의를 완료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구경기장 건립도 지난해 11월 착

공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민과 만남의 날' 운영은 지금까지 총 84회 1299명이 참여하는 등 내실있게 진행되는 등 78건이 현재 추진중이다.

추진실적이 부진한 공약은 ▲코로나 디아스포라 기업관 건립 ▲도시철도 1호선과 연계한 광역철도 건설 추진 ▲광주시 평생교육진흥원 지정·설립 ▲제2순환도로 보조금 지급 경감 및 개선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시책과 연계되어 아시아 문화전당 조기 완공 공약은 정부의 예산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민선 5기 내에 완공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민선 5기 절반의 시간 동안, 박준영 전남지사가 내걸었던 공약사업의 이행률은 62%를 기록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8개 분야 80개 사업 중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주변 SOC 확충 ▲친환경무상급식 등의 공약은 이미 사업이 완료됐다.

특히 여수~순천 자동차전용도로, 이순신대교 등 박람회 개최 도시 여수와 전곡을 잇는 도로망이 제때 확충된 점은 커다란 성과를 손 꼽힌다. 이들 교통망은 박람회 폐막 이후에도 전남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생태공원조성 ▲친환경 동반 조성 ▲행복마을 ▲프라하호퍼재단 R&D센터 유치 등도 80~90%의 이행률을 보이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반면, 사과리 아일랜드 사업은 최근야 부지 매입비 30억원이 전남도의 회를 못하고있고, 서남해안관광레저 도시 개발도 부동지구는 땅 값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민의 삶과 밀접한 친환경 농수산물과 행복마을 육성 등의 공약은 대부분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거나 기업체 투자를 이끌어내야 달성 가능한 공약들도 민선 5기 하반기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원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 large advertisement for Lotte JTB, featuring various travel packages for Europe, Southeast Asia, and other regions. It includes details on flight times, prices, and inclusions for different destinations like Seoul, Europe, and Southeast Asia.